



02 고용

1. 코로나19 사태 전북 고용부문 현황

김시백 연구위원_산업경제연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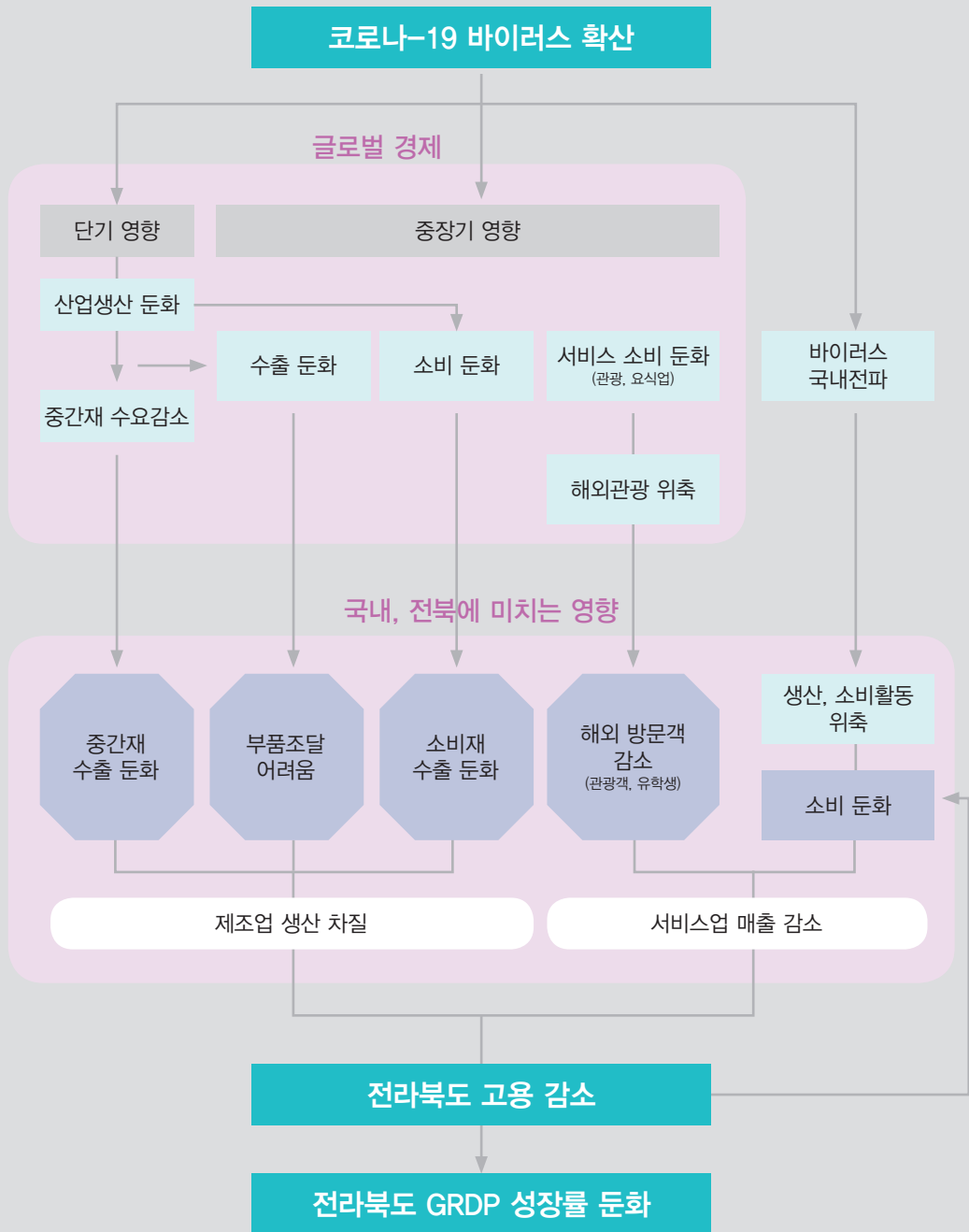
코로나19 사태가 고용 시장에 미치는 영향

코로나19가 전라북도 고용 부문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2가지의 측면에서 발생하고 있다. 첫 번째는 미국, 유럽 중국 등 전 세계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산업 및 경제활동 위축으로 인해 국가 간 인적·물적 교역에 차질이 생김으로써 전라북도 주요 산업들이 타격을 입게 되면서 기업들의 경영난으로 인해 고용 수요가 감소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생산활동과 별개로 국내에서 코로나19의 전파를 우려하여 대면접촉을 하지 않고 소비 활동이 크게 위축됨으로써 소상공인을 포함한 서비스업의 산업활동 위축으로 단기적인 고용시장 위축을 경험할 수 있다.

현 시점에서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국내 소비활동 위축으로 인해 서비스업 사업체들의 매출 감소에 따른 고용 감소 효과가 더 크게 발생하고 있으나, 6월 이후에는 교역의 정체로 인해 제조업 분야의 생산활동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고용 시장 침체는 서비스업에서 제조업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며, 이러한 현상이 지속될 경우, GRDP 등 소득 감소로 소비 위축, 생산 수요 감소, 고용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우려되고 있다.

코로나19 고용부문 전북지역 현황

코로나19로 인해 전라북도 고용시장에 미친 영향은 양적인 측면에서 볼 때에는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경제활동인구는 코로나19 국내 발생 이전 시점인 2020년 1월 932천명이었으나 4월에는 938천명으로 6천명 증가하였으며, 취업자 수 역시 6천명 증가하였으며,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 측면에서도 2020년 1월 대비 4월에 각각 0.4%p, 0.5%p 증가하여 양적인 측면에서 고용시장이 양호한 상황이다. 이에 반해 전국 고용시장은 전





라북도와 반대의 경향을 보이고 있어 마치 코로나19가 전라북도 고용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한 것처럼 해석할 여지가 있다.

하지만 고용시장은 계절적인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전년 동월 기준으로 고용시장 변화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전년 동월 기준으로 고용지표 현황을 볼 경우, 대체적으로 코로나19 발생 이전 시점인 1월과 2월에는 고용 시장이 개선되는 경향을 보였으나, 코로나19 발생 이후인 3월과 4월에는 2019년 동월에 비해 더 악화된 것으로 조사되어 코로나19로 인해 전라북도 고용시장은 위축되었다.

<표 4> 코로나19 사태 전후 고용지표 현황

구 분		1월	2월	3월	4월
경제활동 인구 (천명)	전라북도	932	931	933	938
	(전년동월대비)	(0.22%)	(△0.11%)	(△0.64%)	(△2.39%)
	전국	27,952	27,991	27,789	27,734
	(전년동월대비)	(1.81%)	(1.24%)	(△0.76%)	(△1.94%)
취업자 (천명)	전라북도	907	904	907	913
	(전년동월대비)	(1.45%)	(0.22%)	(△0.44%)	(△2.14%)
	전국	26,800	26,838	26,609	26,562
	(전년동월대비)	(2.17%)	(1.87%)	(△0.73%)	(△1.76%)
경제활동 참가율 (%)	전라북도	59.8%	59.8%	59.9%	60.2%
	(전년동월대비)	(0.4%p)	(0.3%p)	(△0.1%p)	(△1.2%p)
	전국	62.6%	62.6%	62.2%	62.0%
	(전년동월대비)	(0.7%p)	(0.3%)	(△0.9%p)	(△1.6%p)
고용률 (%)	전라북도	58.2%	58.0%	58.2%	58.7%
	(전년동월대비)	(1.1%p)	(0.4%p)	(0.0%p)	(△0.9%p)
	전국	60.0%	60.0%	59.5%	59.4%
	(전년동월대비)	(0.8%p)	(0.6%p)	(△0.9%p)	(△1.4%p)
15~64세 고용률 (%)	전라북도	63.9%	63.2%	62.9%	62.9%
	(전년동월대비)	(0.1%p)	(△0.2%p)	(△0.7%p)	(△1.7%p)
	전국	66.7%	66.3%	65.4%	65.1%
	(전년동월대비)	(0.8%p)	(0.5%p)	(△0.8%p)	(△1.4%p)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산업별 취업자 현황을 보면, 코로나19 발생 시점 기준으로 농림어업 분야 취업자 수가 급격하게 증가한 반면, 서비스업의 취업자수는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20년 1월 대비 4.5% 감소하였으며, 전년 동월 대비 6.4% 감소하여 코로나19로 인해 영향을 많이 받은 산업군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코로나19에 따른 글로벌 경제 위기보다는 사회적 거리 두기 및 대면 접촉 기피에 따라 지역 소비 시장 위축 현상이 나타나 서비스업의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기 때문이다.

다만, 전라북도 제조업 취업자는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전년 동월 대비 증가한 것으로 조사된 반면, 전국 제조업 취업자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어 아직까지 전라북도 제조업 부문 고용시장은 큰 영향을 받지 않고 있으나, 글로벌 경제 성장 둔화가 장기화될 경우 지역 고용시장의 한파가 제조업까지 확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고용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표5> 코로나19 사태 전후 산업별 취업자 현황

구 분		1월	2월	3월	4월
농업, 임업 및 어업 (천명)	전라북도	149	151	175	185
	(전년동월대비)	(△3.25%)	(2.72%)	(13.64%)	(10.12%)
	전국	1,172	1,194	1,399	1,479
	(전년동월대비)	(7.23%)	(7.18%)	(10.59%)	(5.19%)
광공업 (천명)	전라북도	128	124	130	127
	(전년동월대비)	(2.40%)	(0.00%)	(5.69%)	(4.10%)
	전국	4,461	4,459	4,439	4,392
	(전년동월대비)	(0.13%)	(0.77%)	(△0.49%)	(△0.99%)
서비스업 (천명)	전라북도	630	629	603	601
	(전년동월대비)	(2.44%)	(△0.32%)	(△5.04%)	(△6.39%)
	전국	21,166	21,186	20,771	20,691
	(전년동월대비)	(2.34%)	(1.83%)	(△1.46%)	(△1.6%p)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직업별 취업자 현황을 볼 때에도 서비스업 취업자 수의 감소가 두드러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전반적으로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를 제외한 모든 직업별 취업자가 전년 동월 대비하여 크게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서비스·판매 종사자가 규모 측면에서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전년 동월 대비해서도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표6 > 코로나19 사태 전후 직업별 취업자 현황

구 분		1월	2월	3월	4월
관리자 및 전문가	취업자수(천명)	149	148	139	146
	(전년동월대비)	(△2.61%)	(△4.52%)	(△11.46%)	(△5.81%)
사무 종사자	취업자수(천명)	120	119	122	119
	(전년동월대비)	(△6.98%)	(△7.03%)	(△0.81%)	(△4.80%)
서비스·판매 종사자	취업자수(천명)	176	176	170	161
	(전년동월대비)	(0.00%)	(△0.56%)	(△1.16%)	(△8.52%)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취업자수(천명)	144	144	164	173
	(전년동월대비)	(△1.37%)	(5.11%)	(17.14%)	(11.61%)
기능기계조작 조립 종사자	취업자수(천명)	196	196	192	192
	(전년동월대비)	(0.00%)	(0.00%)	(△1.54%)	(△2.04%)
단순 노무 종사자	취업자수(천명)	122	122	121	122
	(전년동월대비)	(27.79%)	(11.93%)	(△2.42%)	(△3.17%)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용시장의 양적 측면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작년 수준에 비해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크게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질적 수준에서도 악화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코로나19 사태 전후로 비임금 근로자의 규모가 증가하는 반면, 임금 근로자의 규모는 감소하고 있어 고정적으로 일정 수준의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일자리보다 인건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무급 종사자의 규모가 늘어나고 있다.

비임금 근로자는 코로나19 사태 이전 시점인 2020년 1월에는 307천명 수준이었으나, 4월에는 329천명 수준으로 22천명이 늘어났는데 이러한 증가의 주된 요인은 무급가족종사자의 증가인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일시적인 경영 여건 악화로 고정비용을 줄이기 위해 가장 먼저 인건비를 줄이는 차원에서 고용원을 줄이고 대신 무급가족 종사자로 대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 근로자는 2020년 1월에는 600천명 수준이었으나, 4월에는 585천명 수준으로 15천명이 감소하였는데, 고정적으로 일정 수준의 임금을 받는 상용근로자 규모는 크게 변동하지 않고 전년 수준을 유지한 반면, 임시·일용근로자 규모가 크게 감소하여 전체 임금 근로자 규모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시·일용근로자 수의 감소는 결국 지역 경제에서 사회·경제적 약자의 고용 기회가 많이 상실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약자에게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표7> 코로나19 사태 전후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현황

구 분		1월	2월	3월	4월
비임금 근로자	합계(천명)	307	311	325	329
	(전년동월대비)	(2.33%)	(6.14%)	(12.85%)	(7.52%)
	자영업자(천명)	252	256	256	252
	(전년동월대비)	(5.44%)	(7.11%)	(10.34%)	(6.33%)
	무급가족종사자(천명)	55	55	68	77
	(전년동월대비)	(△9.84%)	(1.85%)	(21.43%)	(11.59%)
임금 근로자	합계(천명)	600	594	582	585
	(전년동월대비)	(1.01%)	(△2.46%)	(△6.58%)	(△6.70%)
	상용근로자(천명)	408	403	403	406
	(전년동월대비)	(3.03%)	(0.50%)	(0.25%)	(1.75%)
	임시·일용근로자(천명)	192	190	179	179
	(전년동월대비)	(△3.03%)	(△8.65%)	(△19.00%)	(△21.15%)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따라서 코로나19 사태로 전라북도 고용 시장은 규모 측면에서 코로나19 사태 전후로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경제적 약자들의 주요 고용 방식인 임시·일용근로직이 감소한 반면, 이를 대체하기 위한 무급가족종사자가 늘어나 질적 수준의 하락이 발생하고 있어 취약계층의 고용 확보 및 안정적인 일자리 확보가 필요한 시점이다.

2. 포스트 코로나19, 고용부문 글로벌 트렌드 전망

포스트 코로나19, 고용부문 주요 전망

구조적 장기화

과거 글로벌 경제 위기¹⁾ 당시에는 선진국과 신흥국의 실업률이 비동조화 현상을 보였으나, 이번 코로나19 사태에는 선진국과 신흥국의 실업률이 동시에 급상승하고 있으며, 특히 비상용직과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실업자가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원인은 선진국 뿐만 아니라 신흥국에서도 이력효과²⁾가 작동하고 있는 가운데, 향후 수익 악화에 대비하는 기업의 방어적인 경영 운영, 비대면 접촉을 가속화하면서 재택근무 증가로 인해 노동 수요가 구조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글로벌 실업증가 현상이 일부 국가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선진국 뿐만 아니라 신흥국에서 동시에 대규모로 발생하고 있고 변형된 바이러스의 재유행이 2020년 하반기에 다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어 글로벌 고용 시장 회복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금융센터 보고서 “포스트 코로나: 글로벌 실업 증가와 영향”에 따르면, 각국의 경제발전 단계에 따라 고용 회복 속도가 상이하지만 과거 사례를 통해 유추하면 코로나19 사태 이전의 고용시장 환경으로 회복하는 데에는 6~9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글로벌 경기 침체가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고용시장은 기존에 비해 더욱 유연하게 작동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의 일감 확보 여부에 따라 인력 수급이 탄력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며, 이로 인해 고용과 해고가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용시장 제도가 변화될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정규직보다는 비정규 일자리의 규모가 확대될 것이다. 이로 인해 국제사회에서는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한 서민의 실업 증가로 경제적 불평등

1) 1997년 동아시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 과거의 경험이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쳐 실제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보다 낮게 나타나는 현상으로 장기간동안 경제가 부진하게 되면 경제주체들은 여러 경제활동의 계획을 잠재성장률 이하로 축소하는 현상이 장기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야기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에 대해 정부는 계층간 불평등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실업급여 확대 및 고용 안정망 확충 등의 경제 정책을 수립하고 이 부분에 더욱 더 많은 재정 투자를 할 것이다.

4차 산업혁명 기술 기반 고용시장 구조 개편 가속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비대면 문화가 대세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를 위해 5G, AI, 빅데이터 등 기술 기반으로 스마트공장이나 스마트팜과 같은 자동화 설비가 증가되고 전통적인 대면 서비스산업을 대체하여 쌍방향 플랫폼 서비스산업이 성장할 것이다. 따라서 과거에서 비해 노동집약적인 산업에서 기술집약적 혹은 자동화 중심 산업이 국가 경제의 중심이 될 것이며, 고용시장 역시 수요가 과거에 비해 감소할 것이다. 다만, 양적인 측면에서는 감소하지만, IT 기술 관련 고급 일자리와 함께 플랫폼 일자리³⁾를 포함한 독립형 계약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다.

특히 플랫폼 일자리의 경우 온라인 시장이 확산되면서 성장하게 되었는데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성장속도는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플랫폼 일자리는 종사상 지위와는 독립적인 개념으로 임금노동자와 자영업자의 경계에 있는 회색지대에 있는 노동자를 의미하고 있어 기존 고용시장에 상반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플랫폼 일자리는 사용자와 노동 공급자간의 정보 유통을 통해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다 주기 때문에 고용시장에서 프리랜서의 증가가 이루어질 것이다. 하지만 플랫폼 경제는 거래 알고리즘을 작동시키기만 할 뿐 생산적인 역할을 하지 않으면서 수수료를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기존 자영업자의 비용 증가를 초래하여 자영업의 생존율을 낮출 가능성이 존재한다. 또한 플랫폼 일자리는 고용시장의 회색지대에 있다는 점과 제조업에서 서비스업 전반으로 확대되어 일자리를 작은 일거리로 쪼개는 분업이 확산되는 경향을 가속화하여 노동을 통한 소득의 불균형이 커질 것이다.

3) 플랫폼 일자리는 배달 서비스가 중심이 되어 웹기반으로 형성되는 일자리로 다른 일자리에 비해 고용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이 높다.



3. 포스트 코로나19, 전북 고용부문 영향 예측

포스트 코로나19, 트렌드 변화가 전북 고용부문에 미치는 영향

제조업 부문 고용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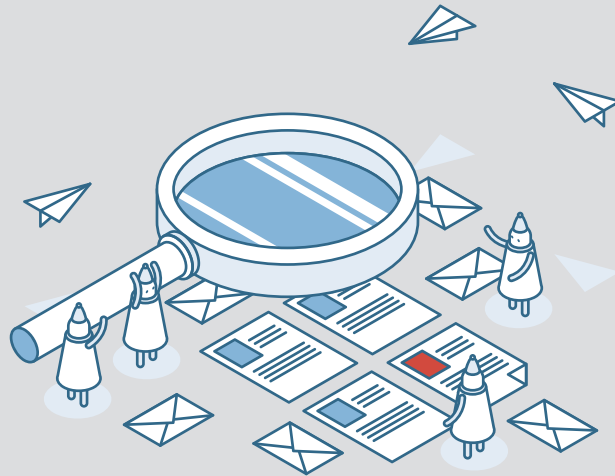
코로나19 사태 이후, 지역 제조업 부문 고용시장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변화가 될 것이다. 첫 번째는 전 세계 제조업의 생산기지라고 불리는 중국 내에서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 중국으로 진출하였던 기업들이 다시 국내로 복귀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기존 주력 제조업의 중간재 생산업종이나 노동집약적인 산업에 대한 인력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물론 중국으로 진출한 기업이 인건비 절감 등을 이유로 중국이 아닌 동남아시아 등으로 이전할 가능성도 있으나, 코로나19에 대한 위험성이 낮고 의료 체계가 잘 갖춰진 국가에서 안정적으로 생산활동을 함으로써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의사 결정을 하게 될 경우, 국내로 유턴하는 기업의 수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두 번째는 4차산업 기술 발전 속도가 더욱 가속화되어 제조 공정의 자동화를 피하게 됨에 따라 단순 가공·조립 등의 인력 수요가 감소하게 되고 자동화공정을 관리, 운영하는 전문 IT 인력 수요가 증가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방향으로 산업 구조가 개편될 경우 노동집약적인 산업에서 기술집약적인 산업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기존의 인력을 대체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창출하지 못할 경우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단기적인 실업사태가 장기화될 수 있을 것이다.

서비스업 부문 고용의 플랫폼화

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 소비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온라인 쇼핑, 직접 배송, 무인편의점, 무인주문 시스템 등 서비스업 분야에서 IT 기술과 결합된 혁신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서비스업의 고용시장은 대면 중심의 일자리는 감소하고 비대면의 성격을 가지는 플랫폼 사업체 및 일자리가 증가할 것이다. 서비스업이 지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플랫폼 사업체와 기존 자영업자와의 상생 협력 구조가 구축되어야 하며, 지역마다 지역 기반의 플랫폼 고용 구조를 갖추는 노력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비대면 소비문화의 확산은 숙박, 음식점 중심의 기존 관광산업 고용시장에서 콘텐츠 중심의 관광산업 고용시장으로 전환되는 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전라북도의 관광산업이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편⁴⁾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단기적으로 고용 감소가 우려되어 콘텐츠 개발 인력을 양성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4) 2017년 기준 전라북도의 관광 GRDP는 지역 GRDP의 4.92%를 차지하고 있으며, 비중 측면에서 세종을 제외한 16개 시도 중에서 세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4. 포스트 코로나19, 전북 대응방향

포스트 코로나19 고용부문 대응 방향

전라북도의 일자리 구조는 자영업자의 비율이 전국 평균 대비 높고(전국 20.8%, 전북 28.2%) 상용근로자의 비중이 낮아(전국 54.7%, 전북 44.4%) 이번 코로나19 사태와 같이 전국 단위의 경제 위기에서 안정적인 일자리 확보에 취약한 구조이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고용률이나 실업률 등 일자리의 양적 수준에는 크게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질적 수준 측면에서 무급가족종사자 수가 크게 증가한 대신 임시 및 일용근로자가 감소하고 있으며, 자영업자 중에서 고용원이 없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어 취약계층의 일자리 소멸이 가시화되고 있다.

앞으로 국가뿐만 아니라 지역 단위에서의 경제 성장이 저성장 기조를 유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안정적인 일자리 확보가 지역 주민의 삶의 질 제고에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안정적인 일자리 확보를 위해서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생존력을 높여 고용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며, 사회적 약자를 포용할 수 있는 전북형 지역주도 상생 일자리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한다.

포스트 코로나19 고용부문 대응 추진사업

고용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일자리 창출 플랫폼 구축

전라북도는 지금까지 제조업 중심의 일자리 확보에 초점을 맞춰 인력 양성 및 고용 지원 정책을 펼쳐 왔다. 하지만, 전라북도 고용의 66.4%가 자영업을 포함한 서비스업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일자리 정책 범위를 서비스업까지 확장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코로나19 사태 이후 비대면 경향이 강화됨에 따라 플랫폼형 산업이 앞으로 도래하고 다양한 유형의 고

용 형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고용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서는 미래 유망산업 육성뿐만 아니라 고용 안정성 강화를 위한 전략 추진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단기적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도내 사업체의 경영 악화에 인한 실직자 발생을 방지하고 고용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전략 추진이 필요하다. 고용안정지원금 확대, 고용유지를 하는 사업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 실직자 대상 한시적 공공일자리 사업 추진을 통해 고용이 지속되도록 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 포스트코로나의 산업 구조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유망산업 인력 수급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이번 코로나19의 글로벌 확산으로 산업생산의 탈중국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이에 대응한 유턴기업 유치를 위한 물리적 공간 조성 및 행재정 지원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또한 비대면경제 도래에 따른 플랫폼 근로자 양성을 위한 IT 기술 기반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고용시장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이와 함께 '치유' 및 '웰니스' 기반 농생명산업과 플랫폼 서비스 산업 등 신산업을 발굴하여 신규 고급 일자리 창출을 도모해야 한다.

일자리복지 실현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지원

전라북도도는 인구유출과 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일자리 수급 관리가 필요한 시기에 도래하였다. 기업은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청년, 여성 및 중장년 등 사회계층별로 일자리가 없어서 비경제활동 상태에 있는 일자리 미스매칭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에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단기적으로 일자리 공급이 줄어들게 됨에 따라 일자리를 확보하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는 더욱 늘어나게 됨에 따라 일자리 미스매칭 문제는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따라서 이제는 일자리복지 차원에서 사회계층별 맞춤형 일자리를 발굴·지원함과 동시에 공공근로사업을 확대하여 소득 주도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

이를 위해 단기적으로 코로나19 사태 기간 동안의 고용시장이 악화된 상황을 빠르게 회복하여 일자리복지 수준을 향상하는 전략 추진이 필요하다.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고용원이 있는 중소 규모 자영업자 및 중소기업 대상 고용보험 지원 확대, 코로나19 사태로 실직한 도민 대상 생계 및 재취업 지원, 임시 및 일용근로자 비율이 높은 사업체 대상 공공구매 우선 할당을 통한 단기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고용시장의 빠른 회복을 도모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 앞으로 플랫폼 경제 구조 전환에 따라 서비스업뿐만 아니라 제조업 등 전반적인 산업 분야에서 프리랜서, 재택근무, 시간제 근무 등 다양한 근무 형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에 대응하여 독립형 계약근로자를 포함한 지역 기반 일자리 매칭 시스템 구축을 통해 다양한 고용 형태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을 확보해야 한다.

지역 상생형 공동체 일자리 발굴

전라북도 사회적경제는 단기간에 빠르게 성장하여 지역 경제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제는 공동체의 질적 성장에 따른 지역사회 역량 강화가 이루어져야 할 시점이다. 2019년 '전라북도 사회적경제 기본계획(2020~2024)'이 수립되어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지역의 사회적경제 자원 및 인프라의 재편을 통해 지역 단위의 사회적경제 생태계가 구축될 것이다. 유럽 등의 선진국 사례를 통해 볼 때, 대기업 중심의 일자리 창출에는 한계가 있기에 지역 상생 공동체형 일자리 모델을 적극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 단기적으로 지역 기반의 사회적경제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춘 전략 추진이 필요하다. 아직까지 사회적경제가 지역 고용에 큰 비중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 고용과 연계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 전문인력 양성 체계 구축과 사회적경제 창업 및 보육의 내실화 및 사회적경제혁신타운 건립 등 역량 강화 사업이 빠르게 추진되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사회적경제의 지속성을 보장하여 지역 고용의 큰 비중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전북 사회적경제기금 및 지역상생형일자리기금을 마련하여 안정적인 지역 고용 시스템을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5. 소결

지역 기반 고용 창출 시스템 구축

코로나19 사태는 현재 국내에서는 안정화 단계에 있으나, 선진국 및 신흥국에서는 아직까
지 확산 단계에 있으며 향후 재발 가능성이 높은 상황으로 대외적인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
다. 전라북도의 고용 시장은 대외적인 충격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번 코
로나19 사태를 계기로 내생적인 지역 발전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역 기반 고용을 유지할 수 있
는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전라북도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는 사회적경제 기반의 고용 구
조를 만들고 제조업 분야에서 지역 내 공급망을 구축할 수 있는 중간재 기업들을 유치, 육성하
여 안정적으로 일자리를 공급할 수 있도록 중장기 산업 육성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플랫폼 경제를 지역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공공 차원에서 지역 기반형 고용 플랫폼을
선도적으로 구축하여 지역 서비스업의 성장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고용 안전망 구축

아직까지는 대규모 실업자가 양산되지 않았으나, 장기간 고용이 불안정한 상황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고용의 안정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경제적 취
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고용 복지 제도를 지역 차원에서 마련해야 할 시점이 도래하였다. 특
히 최근 기본소득제가 국가 단위에서 논의하기 시작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 차원에서도 농민수
당과 유사한 고용 안전망 구축 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었다.